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길

부파불교와 윤회의 주체문제(5)

아트만 없이 윤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했었다. <잡아함경>을 증거로 인용했었다. 이것을 흐르는 냇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 개울물은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흘러 내려간다. 바라문아, 이처럼 사람의 삶도 이 산 개울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과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한편으론 윤회의 주체를 긍정하는 경전의 가르침이 남아 있다.

<아함경>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기 다른 견해들이 보이고 있다. 푸드갈라(Pudgala) 이론과 식 이론이다. 우선 푸드갈라 이론은 <잡아함경>3권의 중담경에 보이고 있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가짐과 짐을 버림과 짐꾼에 대해 말하리라…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인가? 이른 바 오온이다… 어떤 것이 짐꾼인가? 푸드갈라가 그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름을 가졌으며, 어떤 생에와 어떠한 가정에 속했으며, 어떻게 먹었으며, 어떠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는가?"라는 경문이 있다. 여기서 부처님은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오온과 구별되는 어떠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오온이 짐이라면 푸드갈라는 짐꾼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오온과 구별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속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하다고 본다. 뿌뿡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텀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했던 푸드갈라 이론과 식 이론은 부파불교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한다. 즉 독자부와 정량부는 푸드갈라 이론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장로부계의 부파들 대부분은 식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주장한 이론을 계승한 설일체유부나 경량부 못지않게 장시간 번창한다. 결국 부파불교시대에 들입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은 각 부파의 특색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설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을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속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뿡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텀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했던 푸드갈라 이론과 식 이론은 부파불교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한다. 즉 독자부와 정량부는 푸드갈라 이론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장로부계의 부파들 대부분은 식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주장한 이론을 계승한 설일체유부나 경량부 못지않게 장시간 번창한다. 결국 부파불교시대에 들입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은 각 부파의 특색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설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을

윤회 주체 부파별 다양한 이론

자아 믿음 '아뢰야식' 서 정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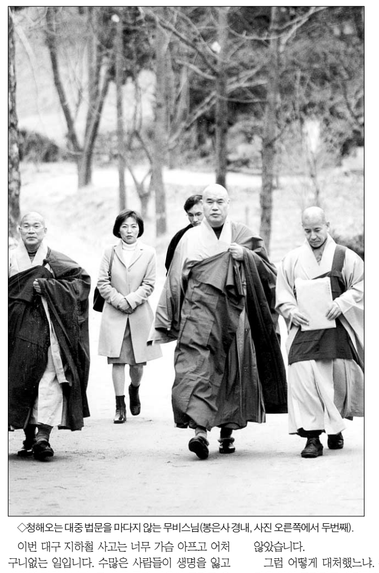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요소이다. 양드레 바로라는 학자는 이 짐꾼이 아트만과 같은 영속한 실체로 인식되는 자아로 파악한다. 그 자아가 생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고 본다. 뿌뿡이란 학자도 "푸드갈라가 업을 짓고, 윤회하고, 과보를 받고, 열반에 이른다. 그러므로 푸드갈라는 실체이고 자아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음에 푸드갈라와 달리 식(vijnana)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식(識)이란 우리들의 감각기관이 그들의 대상을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식이란 아트만이나 지와(jiva)와 같은 불변적이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인 분별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불교경전에서는 종종 이 식을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트만과 같은 윤회의 주체적 텀 간주하고 있다. <중아함경>54권, <증일아함경>12권, <잡아함경>47권 등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처님은 사티라는 비구에게 인간이 수태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간다르와(gandharva)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간다르와는 식과 같은 존재다. 따라서 6식(識)을 말할 때의 식과 영혼을 의미할 때의 식은 구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역경가들은 영혼과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식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神, 識身, 神識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때로는 香陰, 中陰衆生(gandharva) 등으로 지칭한다. <아함경>에서 상주불변하고, 생을 반복해 윤회하는 영혼 혹은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했던 푸드갈라 이론과 식 이론은 부파불교시대가 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한다. 즉 독자부와 정량부는 푸드갈라 이론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장로부계의 부파들 대부분은 식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한다고 주장한 이론을 계승한 설일체유부나 경량부 못지않게 장시간 번창한다. 결국 부파불교시대에 들입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둘러싼 이론은 각 부파의 특색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상주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추구는 오온(존재)이 윤회한다고 설하는 설전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해 진다. 화지부는 세 가지 오온설을 제기한다. 찰나적인 요소, 일생을 지속하는 요소, 윤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는 요소에 의한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실재하는 경험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청해오는 대중 법문을 마다지 않는 무비스님(봉은사 경내,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번 대구 지하철 사고는 너무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아픈 몸과 마음이 그리고 유족들의 아픈 마음이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 해석되고 다 이해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불교의 연기설 또는 인과의 이치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간혹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과연 인과가 있는 것인가, 연기의 도리는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일 대 일의 원한 관계라면 또 모르거니와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인과법칙 가능한가. 이건 불교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해치는 것이 엄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수가 소수를 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수와 임원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두를 다 쳐봐야 2~3백 명밖에 안되는 그런 나라에서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만 명이 경기장에서 그것도 붉은 악마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수백만명, 어쩌면 천만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 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쪽을 응원하면서 다른 쪽이 지길 바라는 것은 비불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예요. 진정한 불법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숫자 대비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당 수천명 수만명은 됐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을 상대로 품은 그 원한이 얼마였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의 모국이 코살라라는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군을 동원해서 나가 싸우자고 했습니까.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했느냐.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연 도리라고 생각하시고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석가족을 쳐들어가는 길목의 바싹 마른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말이예요. 그래서 유리왕은 비록 부처님의 모국을 침범하러 가는 길이지만 성자를 만난지라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인사를 하고는 물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하여 저 무성한 나무들을 두고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계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그대가 나의 모국 카필라국을 무찌르러 가는 이 마당에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내 마음은 저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리왕은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죠. 그래서 군대를 되돌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갑니다. 부처님은 또 그 길목에서 지난 날 같이 똑 같은 자리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대답했고 유리왕은 군대를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은 카필라국을 삼키려는 야욕을 누를길 없어서 또 쳐들어갑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가족은 수십만명이 무참히 죽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한을 원한으로써 갚지 않고 참음으로써 원한을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진정 불자라면 한쪽 편을 들고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게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참 불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찌 부모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심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을 막론하고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을 말한 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인간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최초로 설했다고 하는 화엄경에, "도를 이루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그야말로 부증불감입니다.

부처님께서 육년고행을 하시면서 부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본래 부처였어요. 참선해야 부처가 되고 참선 안했다고 부처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부처예요. 그렇다면 참선이나 기도, 고행은 뭐냐?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끝이에요. 육조 혜능 스님은 불교라는 글자도 모르고 오direct 때 나무꾼이 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임제 스님도 "수승한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수승한 것은 저절로 나에게 있더라" 했어요.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삶,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목표가 알고 보니까 전부 내 자신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들을려고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한번도 자신에 대해서 관조해서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들은 수행을 했던 안했던, 고스란히 부처님의 만행만덕과 지혜를 그대로 갖춘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길 때 무슨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이해를 못하고 받들어 섬기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이라도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받들어 섬긴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부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불자들이라도 서로 받들어 섬기면 세상이 다 행복해 집니다. 그 길 외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길은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이 길 말고는 어떤 방법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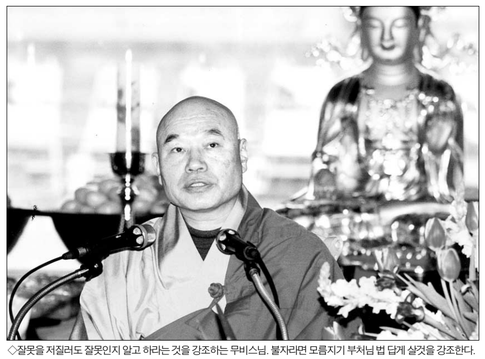
정리=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상만물을 부처님으로 섬기세요

지상 백고좌

무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인지 알고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무비스님.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처님 법 답게 살것을 강조한다.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삶'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알고보면 전부 자신 속에…

조계종 교육원 가족이 본 무비 스님

"한 마디로 소탈한 분이시죠. 전형적인 강사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지요. 젊은 시절부터 경학에 몰두해온 분이라 그럴 겁니다. 모시기 편한 분이예요."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정산 스님의 말이다. 굳이 다른 스님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스님의 이력들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앙종회의원도 거쳤고 교육부장 소임도 맡았지만 그것들 또한 강백으로서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스님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교육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심경은 어떨까.

64년 해인사 강원 마친 후 줄곧 강사의 길

"항상 열려있는 대 강백" "화합 솔선수범"

을 보면 그 소탈함의 정체가 단박에 드러난다.

1958년에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1964년 해인사 강원을 마친 후 줄곧 강사의 길을 걸었다. 범어사 · 통도사 강주, 중앙승가대학 교수,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소임이 스님의 주요 이력 사항이다.

"순간 순간 은해사 승가대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미가 쏠쏠하거든. 하지만 이 일도 보람이 있어요. 승가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스님의 태도는 교육원의 재가 종무원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려 있는 분이예요. 전통 교육에 대해서는 최고의 식견을 갖추셨어요. 그러면서도 현대 교육에 대한 이해도 밝으십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 스님은 개인적으로 경전 보급운동을 꾸준히 펼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회향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님의 행정 스타일은 어떨까.

"항상 화합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당신이 모범을 보이세요.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위원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습니다."

교육원 재가 종무원의 말이다.

그래도 무비스님의 진면모는 역시 대강백이었다. 교육부장 정산 스님의 한 마디.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잖아요. 주지 소임 한번 안 맡았어요. 스님은 천상 강백이예요."

도심에서 포교한다고 떠들썩하던 시간을 정리하고 시원함과 섭섭함의 만감이 교차하던 시간에 가장 먼저 찾은 기도처가 운문사 사리암이었다. 사리암 나반존자 기도처에서 흡가 생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기도에 몰입하던 때 만난 스님이 사리암 원주 정호스님이다. 정호스님은 자연과 환경, 생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열정적인 비구니 스님이다.

내가 운문사 사리암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원주스님의 관심처럼 못 생명이 한식구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혜안할 수 없는 흐뭇함에 빠졌다. 야생 산고양이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아 애지중지 젖먹이는 모습이나, 새끼의 어설픈 날갯짓에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새의 당황하는 울부짖음에서, 이렇듯 생명 가진 것들의 자식 사랑은 지극하기만 한데, 저들과 우리가 드러난 모습이 다르다 하여 무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정호 스님이 손 위에 잣을 들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들어 잣을 물고 가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이름모를 새는 스님의 손에까지 날아와 앉아 먹이를 먹는다. 그 작은 새가 깜찍한 발톱으로 스님의 손바닥에 앉아 먹이를 먹을 때의 그 느낌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경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먹이를 줄 때는 온 산이 떠들썩하게 전체 새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친다. 그러고 보면 결코 조용하다거나 다소곳하다거나 다정다감한 것은 아닌데도 스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먹이 주는 것을 알고 새들이 눈치껏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슴이며 염소까지 찾아든다는 말에 산을 지키고 가꾸는 스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자비와 신뢰의 마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 짐승들이 사람과 말이 통해서 가까이 오겠는가! 말보다 진한 따뜻하고 악의 없는 마음이 느껴져야만 동물들은 움직인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요즘 세태에서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짐승은 그가 가진 자연의 본능으로 상대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서야만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자신의 심통은 가려놓고 먹이를 내미는 자기에게 새가 오지 않음을 원망한다. 새나 짐승들이 생각보다는 영리하다. 최소한 자신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세들의 직감이, 목적과 수단, 즉 순수와 허세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든 생명에게 악의 없는 마음을 열고 있는 스님이 바로 사리암 원주 정호스님이다.

스님은 산중에 함께 사는 생명들과 대화를 한다. 앞산에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통해 그들의 사연을 알아 듣고는 격정과 안심사이를 수없이 오고 간다. 고양이가 유난히 많아서 사연을 물었더니 쥐들이 설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면서, 이렇듯 생명 가진 것들의 자식 사랑은 지극하기만 한데, 저들과 우리가 드러난 모습이 다르다 하여 무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정호 스님이 손 위에 잣을 들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들어 잣을 물고 가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그림 · 문병성

아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이름모를 새는 스님의 손에까지 날아와 앉아 먹이를 먹는다. 그 작은 새가 깜찍한 발톱으로 스님의 손바닥에 앉아 먹이를 먹을 때의 그 느낌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동경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먹이를 줄 때는 온 산이 떠들썩하게 전체 새들이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친다. 그러고 보면 결코 조용하다거나 다소곳하다거나 다정다감한 것은 아닌데도 스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먹이 주는 것을 알고 새들이 눈치껏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슴이며 염소까지 찾아든다는 말에 산을 지키고 가꾸는 스님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자비와 신뢰의 마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 짐승들이 사람과 말이 통해서 가까이 오겠는가! 말보다 진한 따뜻하고 악의 없는 마음이 느껴져야만 동물들은 움직인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요즘 세태에서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현재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호스님

자연환경 · 생명에 남다른 애정

"밥 먹어라" 외치자 동물들 기웃

학 수학능력고사가 치러지는 날에도 기도를 갔었는데, 정호 스님의, 수행생 부모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씀이 마치 모든 기도 불자들의 어머니 같았다. 수험생 부모가 아닌, 사리암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하라, 자리를 양보하라, 신경을 자극하지 말라는 등등 수험생부모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유난히 지극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비도 많고 뜻밖에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엿지는 않지만, 스님의 생명사랑은 생명경시가 갈수록 심해지고 인간중심의 편협함이 느껴지는 요즈음 현실에서는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마음이다.

소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앗아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보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정호스님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웃을 가능한 세상을 살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특히 남는다.

심산 스님은 8년 내장사에서 모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 86년 범어사에서 자운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6년 동국대 졸업하고, 88~90년 공군법사로 활동했다. 93~2002년 통도사 부도암 주지를 맡아 문화를 통한 지역포교에 앞장서 왔다. 현재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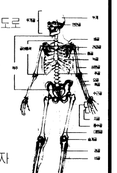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바람 낭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Yuhwa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지맥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례에 드립니다.
● 유애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퇴마승 예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불교예술대학 학생모집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본 불교예술대학은 김해강 큰스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모든 능력을 제자 진하스님께 전수하여 그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분은 함께 동참하여 불교예술의 전수를 배우고 인간문화재의 후계자가 되시기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약간명
■ 교육기간 : 매 3개월 마다 한가지씩 수료함.
■ 수 업 료 : 월 10만원
■ 연 락 처
02)969-2410 / 02)969-4981

※ 김진하 교수님의 법무(法舞) 비디오테이프가 출반되어 있으니 구입코저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장 김 해 강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 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 주 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단원빈에 가슴이 뚫리고 단전이 열리는 선비호흡 !

호흡법 수행 이야기

잘을 얽치게 잘하는 법이 지지로 호흡에 맞춰잡하는 법에 이어 처음 공개하는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는 동작으로 배우는 자동단전호흡법 공개 수련회

◈ 참선, 염불, 독경, 위빠사나 수행시 호흡법, 자세법을 무시하는 수행자
◈ 횟병, 상기병으로 머리무겁고, 눈충혈, 참이 마르고, 헛배늘씨고, 입안이 헐고, 안습부르트고, 머리속 영조, 목이 아프고, 얼굴이 붉고, 열이나며, 항상피곤하여 늘잠 좋아하는 수행자
◈ 명치끝이 빠근하고 속이 답답하며 배꼽위아래 단전부분이 딱딱하고 맥이 끌떡끌떡 뛰는 수행자
◈ 숨을 가쁘로 쉬어 역호흡(염불, 독경, 등산, 대화할때 들숨시 어깨와 가슴이 올라가고 배가 들어감)이 되어 올숨때, 놀랐을때처럼 호흡하는 습관과 두려움이 많은 수행자
◈ 배꼽위 위배가 나오고 열근이 살이 많고 아랫배가 냉하고 손, 발, 무릎이 차가운 단전이 막힌 수행자
◈ 손가락, 엄지발가락 마디 부분이 까맣고 기미가 있고 가슴, 배, 등, 허리에 검은 반점, 여드름, 담섬이 있는 수행자
◈ 불면증(3일), 우울증(30일), 역정, 노이로제, 당뇨, 변비(5분), 비만, 소화불량(3분), 고혈압 환자가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는 단전호흡을 하면 좋지않고 도인법과 자동단전호흡법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극적임을 체험할 수 있다.
◈ 무의식중에 들숨시 저절로 단전호흡이 되고 날숨시 간호흡이 되는 절, 염불, 독경, 자동단전호흡법이 건강법으로 확실하며 살을 빼는 다이어트로 가장 수승함을 보여드립니다.
◈ 절할때 흡호흡, 호흡법은 10분이내에 누구나 100% 수승화장 두한족열이 되는 완벽함을 그동안 수련을 해온 2만여명의 불자들이 절할때 마다 체험합니다.
((숨이 차고 혈액대고, 맥박이 빠르게 뛰며 빠른속도로 경맥스럽게 하는 절은 수행이 아닌 못된 것입니다.))

※ 수련장소 : 청호불교 문화원 7층 대법당
(서울 강남 청담동 늘봄예식장 시네마홀스 뒤 50M)
※ 수련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 ~ 3시
※ 수련문의 :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청견스님
※ 전 화 : 031)771-7745, 011-9088-9449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마냥는 자세로 반환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누비,적삼,바지]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W140,000
동방, 바지 : W160,000
두루막 : W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W130,000
동방, 바지 : W150,000
두루막 : W130,000

3. 누 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W220,000
동방, 바지 : W240,000
두루막 : W200,000

4. 누 비 (혼방) 적삼, 바지 : W170,000
동방, 바지 : W190,000
두루막 : W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조끼